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안 번호	1263
----------	------

발의연월일 : 2007. 4. 30.

발 의 자 : 김성배 의원 외 9인

1. 주 문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북권역의 시청 - 은평구간과 동북권역의 홍제 - 길음구간의 경전철 노선건설(안)에 대하여 종로구 일부 지점을 통과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위 노선건설이 반드시 확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구성 위원수 : 5인

- 위원장 : 1
- 부위원장 : 1
- 위 원 : 3

□ 위원 선임방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 위원회 활동범위

- 건의문 채택 서울시,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공청회 참석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 전개
- 집행기관 등에 대한 필요한 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 지속적인 캠페인 및 서명운동 전개로 주민여론 확산
- 경전철 노선건설(안) 우리구 통과 8개지점 등 현장확인

□ 위원회 활동기간 : 2007. 4. 30 ~ 6. 30 (2개월간)

※ 필요시 연장 가능

2. 제안이유

서울시가 버스·지하철과 함께 경전철을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울시내 11개 경전철 노선을 정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2007년 4월 3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북권역의 경우 시청역에서 은평구간의 종로구 주요 통과지점은 광화문 - 경복궁 - 효자 - 청운 - 조석고개 - 세검정 - 신영삼거리 - 자하문호텔의 8개지점과 동북권역은 홍제 - 길음구간의 일부 지점이 통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구간은 현재 교통수요량이 많아 날로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으며, 특히 홍지동, 부암동 등 일부 지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취락지구) 지정을 위해 추진 중에 있는 낙후된 지역으로서 위 경전철 건설노선(안)은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전철 노선건설(안)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서북권역 경전철 노선건설 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